

# “호남의원 3명 뿐이지만... 빌고 경청하고 거듭나겠다”

## 더민주 광주서 당선인 워크숍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전통적 텃밭인 호남의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대대적인 구애 작전에 나섰다. 더민주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당선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더민주의 워크숍에 앞서 5·18 민주묘지를 단체로 참배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뒤 ‘광주 정신’ 계승 의지를 다졌다.

이어진 워크숍은 ‘광주시민에게 듣는다’는 제목의 현장 민심 청취, 민생국회 실천과 수권경제 정당 실현을 위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13일에는 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한다.

더민주가 이날부터 이틀 간 광주에서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개최한 것은, 4·13 총선에서 자신들을 철저히 외면한 광주민심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본격 나서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더민주의 호남 전체 28개 지역구 중 단 3곳만 건지는 참패를 했고, 특히 호남의 심장부인 광주에서는 8석 중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이 때문에 더민주가 광주에서 워크숍을 연 데는 텃밭 민심 회복을 향한 절박한 심정과, 국민의당과의 호남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당선인 워크숍 첫 행사인 현장 민심 청취시간부터 지역인사들로부터 쓴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반성과 성찰을 워크숍 콘셉트로 제시했지만, 일부 당선인이 즐기거나 하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담 참석자로부터 “의원님, 하품 나오시죠? 제 말 재미가 없죠”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상호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에게 호된 재촉을 한 호남 민심 앞에서 ‘잘못했습니다’라며 빌고 경청하고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하려 온 것”이라며 워크숍 취지를 설명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인사말에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권교체의 꿈에 한 걸음 성큼 다가섰지만 무서운 민심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윤 시장은 “열심히 뛰어달라”는 취지로 김종인 대표와 우 원내대표에 운동화를 선물하고서 삼선정치 전

## 이들간 호남민심 되돌리기

### 5·18묘지 ‘임을 행진곡’ 제창

### 지역 인사들 쓴소리 쏟아내

장사업 유치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등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도 서면 인사말에서 “호남이 더민주를 심판한 것은 정권교체를 할 수 있을지 미덥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당을 해체한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지역 인사들은 대담에서 더민주의 호남 선거 패배가 무능과 오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경미 한국퍼실리테이터연합회 광주전남지회 기획이사는 총선 패배에 대해 “진노패권·호남홀대론에 대해 정성을 다하지 않고 대응한 대가이자 김종인 대표의 호남에서의 한계다. 정점을 찍은 것은 셀프공천”이라고 주장했다.

탁영환 전 광주교육대 정치학 외래교수도 김종인 대표의 ‘셀프공천’과 진노 패권주의를 호남 패배의 원인으로 지적한 뒤 “총선 결과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며, 더민주의 총선 결과는 불로소득이다. 이 불로소득을 갖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더민주에 희망이 있을까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수권능력을 갖춰야 민심을 회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선호 시민플랫폼 나들 대표는 “선거 때 자신 있게 여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지역 인물을 평소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고, 김동현 광주경찰서 사무처장은 “완곡말대해서 선명성 있는 야당의 모습을 안 보여주면 다음 결과도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성 있게 광주전남 지역민들을 모시겠다”며 “호남 의원이 3명뿐인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는데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12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두 도시 간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협약을 한 뒤 서로 포옹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정신 되새기기 위해...” 박원순 2박3일 광주 민심탐방

### 5·18 민주묘지 참배하고 서울시-광주시 문화관광교류 협약

아권의 대권 잠룡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 12일, 2박 3일간의 아권 심장부 광주 민심 탐방에 나섰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시민사회 출신으로 각별한 사이인 윤장현 광주시장과 만나 서울시-광주시 문화관광교류협력 협약을 했다.

두 도시는 이날 협약에 따라 서울시 공공기관·문화예술단체 관계자들의 아시아 문화전당 방문, 서울 거리예술축제와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교류 공연, 아시아 국제문화 교류사업 추진 시 프로그램 정

보 공유 등 협력을 추진한다. 서울을 찾는 중국 관광객에게 남도 문화관광을 안내하고 다음달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아셈(ASEM) 문화장관 회의를 홍보하는 것도 협약내용에 포함됐다.

두 도시는 2014년 7월 상생발전을 위해 시 전방에 관한 교류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협약은 문화관광 분야 세부협약의 하나다. 아시아 문화전당 활성화, 도시 간 교류를 통한 문화관광 산업발전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광주시는 밝혔다.

박 시장은 협약 체결 전 아시아 문화전당 곳곳을 둘러보며 운영상황 등을 살펴보고도 했다.

윤 시장은 “서울시와의 협약을 계기로 광주가 문화 도시로 더욱 발전하고 아시아 문화전당이 세계적인 복합문화기관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광주를 찾은 박원순 시장은 13일에는 전남대 특강, 광주시의원 면담, 광주트라우마센터 방문, 오월단체 회원들 면담, 송정시장 청년상인 등을 만날 계획이다. 박 시장은 광주 방문 배경에 대해 전남대 강연(13일) 요청도 있어서 왔지만 스스로 성찰하고 많은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러 왔다고 밝혔다. 대권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광주정신과 늘 연결돼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돌려 답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지지율 하락세 국민의당, 더민주 광주 집결에 촉각

국민의당은 12일 당선인 워크숍을 계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집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최근 당 지지율이 하락세인 데다 아권 텃밭인 호남에서마저 더민주에 바짝 추격당하는 상황에서 위기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총선 이후 일부 한계와 실책에 대한 자성론과 함께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한 혁신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당내에서는 더민주의 호남 방문을 그냥 두고볼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제1야당으로서 더민주의 저력이나 호남이 가진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의 새누리당과의 연립정부론, 국회의장 선출 논란과 관련해 당의 정체성이나 노선이 불분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호남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권교체라고 뽑아줬더니 새누리당 연정론 같은 소리를 했다. 그러니 바로 지지율이 급락했다”고 말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정책도 좋고 공부도 좋지만 무엇을 위해서인지, 어떤 방향인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우리의 비전과 가치를 더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남에서 우리 당을 지지했다기보다 진노(진노 무현)에 대한 실망감 탓에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며 “지금(지지율 하락)은 조정기이다. 우리가 반성할 수 있는 체적인 셈”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이 20대 국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면 지지세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지·정책역량 강화 노력을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더민주·국민의당 “오늘 靑회동서 ‘임을 행진곡’ 기념곡 지정 관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3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기념곡 지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버리고 있어 주목된다. 5·18 민주화운동 36주년인 오는 18일 각각 당 차원의 대규모 광주행을 앞두고 해묵은 과제인 기념곡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지난 2013년 6월에 기념곡 지정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지정 문제가 계속 표류해 왔다. 최근에는 광주 등 호남 의원들이 중심이 돼 기념곡

지정 재추구 결의안도 제출했다.

더민주 이상호 원내대표는 12일 “내일 청와대 회동에서 대통령을 만나 기념곡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라며 “어제도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함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이야기했는데 정 원내대표가 대답을 안 했다”고 말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비록 우리가 광주에서 의석 전체를 잃었지만 이 문제만큼은 총대를 메고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 수석부대표도 이날 교통방

송 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홍입니다’에 출연,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곡 문제를 ‘꼭 하려고 마음먹은 이야기’로 꼽은 뒤 “기념곡 지정 문제는 국회서 여야가 합의해 (지정추구 결의안)의 결과까지 했는데 정부가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국회에 대한 존중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보훈처장도 ‘내 손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결단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꼭 꼭 재지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

# 라식 vs 라섹

**라식 수술**

각막결편을 만들고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통증이 적고 시력회복이 빠르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라섹 수술**

각막 상피를 벗긴 후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라식에 비해 통증이 다소 있고 시력회복 속도가 느리지만 충격과 안구건조증에 강한 수술 방법입니다

◎ 사람의 눈은 손가락의 지문처럼 모두 같지 않습니다. 때문에 각각의 눈에 맞는 다양한 수술이 가능한 시력교정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역: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바른광주안과

www.sejonghosp.com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 진료내용

#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을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작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 두 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 뇌신경계: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 척수신경계: 외상성척수손상, 척수종양, 척수염

**근골격계**

- 수술 후 회복 재활: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 통증재활: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전남대병원에서 광주전편 방향

**대표전화 (062)236-5200**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